

실적에 '취한' 광주서부경찰

특진 노려 무리한 음주운전 단속... "시민이 승진 도구냐" 잇단 비난

두달새 무려 2천건... 타 경찰서 비해 최고 6배

음주운전,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다. 그러나 경찰관 1명을 특진 시키기 위해 경찰서의 전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펼쳤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개인 승진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이 지난 연말연시 음주운전사범 단속에서 1계급 특진 포상을 노리고 무리한 단속을 펼쳐 물의를 빚고 있다. 서부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1천983건의 음주운전사범을 단속했다.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중 단연 1위다.

하루 평균 33건씩을 단속한 것으로

로, 서구 인구(30만7천명) 1만명 당 65.1명 폴로 적발된 셈이다. 관할 인구가 31만3천명으로 서부경찰과 비슷한 광산경찰이 554건을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동부경찰은 422건, 남부경찰 317건, 북부경찰 750건을 단속했다.

서부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친 것은 단속실적 평가에서 전국 236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할 경우 해당 경찰서 직원(경위) 1명에 한해 1계급 승진 포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단속이 두달동안 계속되면서 민원인과 경찰관 모두 과김치가 됐다. 교

통과 직원 60여명 대다수가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배치돼 교통사고 처리 등 일상적인 업무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원성을 샀다.

또 상습정체구간에서 무리한 단속을 펼쳐 운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과중한 업무로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을

경찰 특진의 도구 정도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이 근절돼야 할 범

죄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꼴"이라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사범이 많이 적발되길 했으나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수가 아니다. 지난 해엔 광주북부경찰에서 이 정도 단속 실적을 올려 한 명이 승진했다"며

"이번 단속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했으며, 결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법학교육위원회가 정리해 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원 배장에 불만을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려대 법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학간 갈등만 조장하는 협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학내외 구성원의 뜻을 모아 인가신청 철회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로스쿨과 함께 법과대학을 존치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한국법학 교수회 명의로 낼 계획"이라며 "향후 세미나를 거쳐 입법안 내용을 확정,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조선대와 청주대, 단국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 중 13개 대학과 고려대, 중앙대 등 로스쿨 선정 대학 중 8개 대학 등 21개 대학이 참석했다.

또 ▲도입 초기 총 정원은 3천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입학 정원을 구상할 것 ▲준칙주의의 하에 인가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할 것

명으로 93명이나 줄었다.

반면, 영어학원은 지난해말 4천962명이던 학생수가 2월10일 현재 5천193명으로 23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대상 학원 100곳의 전체 학생수 증가분 70명의 3배를 넘는 수치다. 교육부의 지시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유치원생을 포함한 초·중·고교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가운데 동·서부교육청 내 학원 50곳씩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하는 방식을 거쳤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금수송 차량 털려다 포기 부녀자 상대 범행 '덜미'



21개 사립대 총장 새 법학교육위 구성 촉구

조선대 등 로스쿨 총정원 증원 요구

"인가요건 갖춘 대학 설립 허용해야"

조선대 전호종 총장 등 전국 사립대학총장들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차기 정부에 새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회의 후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는 로스쿨 인

가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전명하고 법학교육위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또 ▲도입 초기 총 정원은 3천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입학 정원을 구상할 것 ▲준칙주의의 하에 인가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할 것

법학교육위원회가 정리해 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원 배장에 불만을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고려대 법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학간 갈등만 조장하는 협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학내외 구성원의 뜻을 모아 인가신청 철회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로스쿨과 함께 법과대학을 존치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한국법학 교수회 명의로 낼 계획"이라며 "향후 세미나를 거쳐 입법안 내용을 확정,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금수송 차량 털려다 포기 부녀자 상대 범행 '덜미'

"복 많이 담으세요"

정월 대보름(21일)을 일주일 앞둔 14일 복조리 특신품으로 유명한 화순군 북면 송단리 임연 규씨 부부가 산죽으로 복조리를 만들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소심한 3인조 강도

현금수송 차량 털려다 포기 부녀자 상대 범행 '덜미'

현금수송 차량을 털어 크게 한탕하려던 3인조 강도가 정작 '큰판'은 벌이지도 못하고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짓을 벌이다 경찰에 불잡혔다.

지난달 22일을 '디데이(D-day)'로 삼은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복포지 하당동 KT&G 앞에서 정차중인 현금수송 차량을 털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통행이 찾고 비까지 내리자 범행을 포기하고 철수하고 말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진안군 부귀면 유모(여·58)씨의 집에 들어가 유씨의 손과 발을 데리고 묶은 뒤 현금 등 210여만원을 빼앗는 범행을 저지르다 불잡혔다. 도씨는 경찰에서 "2년 전부터 현금수송 차량을 털려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막상 범행을 하려니 가슴이 두근거렸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어학원 '밀물' 예능학원 '썰물'

영어몰입교육 발표 이후 회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차기 정부에서 '영어몰입교육'을 하겠다고 하자, 영어학원 학생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시내 영어학원 34곳, 음악학원 33곳, 미술학원 33곳 등 사설학원 100곳을 대상으

로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 발표 전 인 지난해 말과 이후인 지난달 1월30일, 2월10일 등 시점에 따른 수강생 변동주기를 조사했다.

음악학원 학생수는 지난해말 1천 247명에서 1월30일 1천207명으로 증가, 2월10일에는 1천179명으로 40일 동안 총 68명 감소했다. 미술학원도 지난해말 998명에서 2월10일 905

명으로 93명이나 줄었다.

반면, 영어학원은 지난해말 4천962명이던 학생수가 2월10일 현재 5천193명으로 23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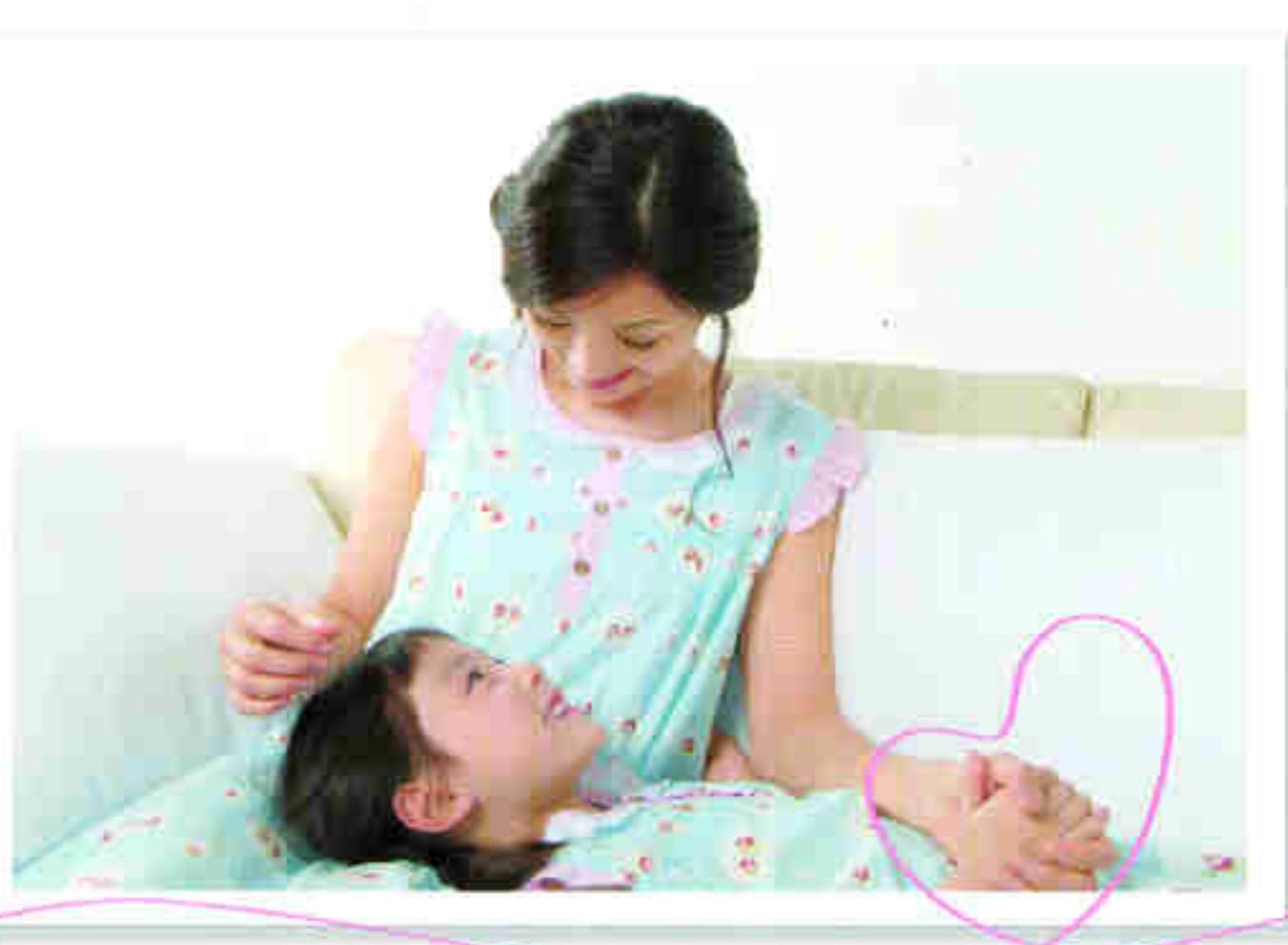
한금수송 차량 털려다 포기 부녀자 상대 범행 '덜미'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브론아이였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람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유토피아온 일상 수유기 병을 베끼드
제작: 제이비, 소년기
- 유익·건조국의 관백, 아령증
- 면밀·파부쟁 등 대·인·세소증
- 나이, 주근세내·증화, 아동증
- 파울립·여린
- 밀초화영장어 및 경기기사·다증
증상의 외화: 아파, 죽임
수족·수족수족증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oreancharme.co.kr

고객을 위한 전화번호: 080-022-2200